

세계의 모든 책 디지털화한다

2001년까지 1만권의 전자책 만드는 구텐베르크 프로젝트

책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셰익스피어 전집쯤은 갖고 싶어한다. 그렇다면 셰익스피어 전집을 구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 뭘까? 부자라면 간단하게 셰익스피어 전집을 살 수 있겠지만, 인터넷에 연결할 수 있는 컴퓨터가 있다면 그보다 더 빨리 셰익스피어 전집을 구해 볼 수 있다. 게다가 통신비 외에 추가 비용은 없다.

'구텐베르크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진행되는 이 작업은 인류의 공동유산인 문헌 고전을 온라인상에서 원하는 사람에게 즉각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구텐베르크 프로젝

트가 처음 시작된 것은 1971년. 이 계획을 최초로 구상한 마이클 하트가 일리노이대학교 재료연구소의 대형컴퓨터인 제록스 시그마 V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얻게 되면서부터다. 일이 잘 풀리려고 하니깐 4명의 오피레이터 중 2명이 그와 친한 사람이었다. 당시 하트에게 주어진 컴퓨터 사용시간을 돈으로 환산하면 1억 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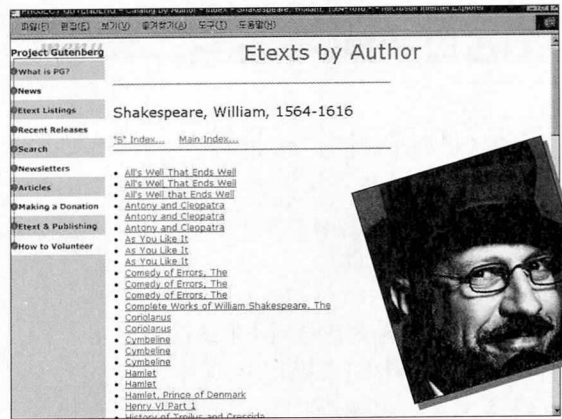
하트는 곧 컴퓨터 프로그래밍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도 1억 달러의 가치에 해당하는 유용한 일이 있음을 발견했다. 바로 인류가 남긴 책을 디지털 문서로 저장하는 일이었다. 하트는 곧 자신의 생각을 행동으로 옮겨 1971년 처음으로 <미국독립선언문>을 전자책으로 만들어 네트워크를 통해 배포했다.

컴퓨터 저장기술이 낮았던 70년대에는 주로 <미국헌법>, 아브라함 링컨의 <게티스버그 연설문>, 존 F. 케네디의 <취임연설문> 등을 입력했고 80년대에는 흥정판 <성경>과 <셰익스피어 전집>에 대부분의 시간을 투자했다. 90년대에 이르러 많은 자원봉사자의 참여와 컴퓨터 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으로 구텐베르

크 프로젝트는 본격적으로 종수를 늘려나가 지금은 모두 1948종의 책을 입력한 상태다. 구텐베르크 프로젝트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원봉사자는 책을 선택해 스캐너로 내용을 입력한 뒤, 교정 절차를 거쳐 마이클 하트에게 보내면 된다. 세계의 어떤 언어도 가능하지만, 아직까지 한글본은 없다.

몇 가지 한계도 있는데, 사람들이 많이 찾는 책을 입력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는 전제 아래 널리 알려진 고전을 중심으로 작업하며 결정본을 제공하지는 못한다. 대신 이 프로젝트는 다양한 판본을 제공한다. 셰익스피어의 경우, 월드라이브리리를 비롯해 모두 3종류의 판본을 제공한다. 구텐베르크 프로젝트는 궁극적으로 CAT, MRI, X선 형광투시법 등의 기술을 이용해 옛 판본들의 3차원 자료도 제공할 계획이다.

한편 처음 프로젝트를 계획했을 때와 달리 저작권법이 강화되는 바람에 구텐베르크 프로젝트가 제공할 수 있는 책은 저자 사후 50년이 지난 책으로 한정된다(시작할 때만 해



구텐베르크 프로젝트에서는 모두 37가지 판본의 셰익스피어 전집을 제공한다. 공상을 1948종의 디지털문서로 현실화시킨 마이클 하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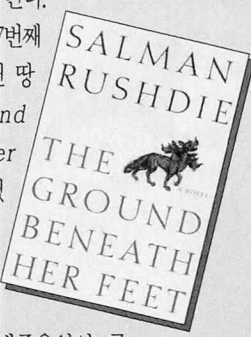
도 저자 사후 14년까지였다). 따라서 현재 인터넷을 통해 내려받을 수 있는 전자책은 체홉·발자크·톨스토이·호손·디킨즈·하디 등 20세기 이전 작가의 작품들이다. 또 국내에 잘 번역되지 않는 키플링·G.K. 체스터튼·윌리 콜린스·쥘 베른·H.G. 웰즈·메어리 로버트 라인하트 등 대중작가의 모든 작품을 읽을 수 있고 몇몇 프랑스본과 이태리본도 포함됐다. 이밖에 <로제 단어숙어사전>·<웹스터 대사전>·<CIA 월드 팩트북> 등 참고자료 등도 내려받을 수 있다. 구텐베르크 프로젝트 공식사이트(<http://promo.net/pg/>)에 접속하면, 자세한 목록과 내려받는 방법 등을 알 수 있다. —김연수 기자

해외단신

◆ 최근 미국상무성이 발표한 1998년 서적수출현황에 따르면 한국은 지난해 1천6백만달러(192억원) 어치를 수입해 전체 수입국 중 14위를 차지했다. 1997년 한국은 2천9백만달러를 수입했다. 아시아 경제위기의 여파로 미국서적을 활발하게 수입하는 싱가포르·대만·홍콩 등의 수치가 많이 낮아진 가운데 중국만이 1천7백만달러로 1997년에 비해 161.4% 성장해 중국출판시장의 가능성을 예고했다.

◆ 미국출판사 랜덤하우스는 6월, 전 비틀즈의 멤버인 존 레논이 오노 요코와의 사이에서 낳은 아들 션 레논을 위해 그린 그림을 모아 <진짜 사랑(Real Love)>이라는 그림책을 펴낼 예정이다. 존 레논의 미취업 노래에서 제목을 따온 이 책에는 단순한 선과 독특한 색채가 돋보이는 존 레논의 동화적인 그림들이 수록된다.

◆ 루시디의 7번째 소설<그녀가 다닌 땅(The Ground Beneath Her Feet)>이 출간됐다. 루시디는 두 주인공 비나 압사라와 오르무스 카마를 서양대중음악인 록큰롤에 큰 영향을 끼친 인물로 설정하고 그들의 사랑, 음악, 삶을 그린다. 600면에 달하는 방대한 분량이지만, 그간 나왔던 루시디의 소설 중에서 가장 낙천적이고 읽기 편한 작품으로 평가받는다. ◆



세계 인터넷서점 할인경쟁 불붙어

사이버시장 할인전쟁 미국서 영국·독일까지 번져

지난 5월 17일, 미국 인터넷서점인 아마존이 뉴욕타임스 선정 베스트셀러의 책값을 50% 인하하면서 시작된 사이버 책시장의 할인전쟁이 영국으로 옮겨가면서 그 열기가 전세계로 파급되고 있다.

6월 8일 아침, 영국 아마존(Amazon.co.uk)은 베스트셀러 상위 40위까지의 소설과 비소설에 대한 할인폭을 50%까지 늘린다고 발표했다. 이 발표가 있는 지 몇시간 지나지 않아 베르텔스만의 자회사인 BOL(Bol.com) 역시 아마존과 같은 할인폭을 적용한다고 선언했다. 이들의 할인선언은 현재 상위 20위권까지 50% 할인을 적용하는 WHS에 맞서기 위한 것. BOL의 영업이사인 스티븐 블랙번은 "가져 경쟁에 앞장서고 싶은 생각은 없지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져야만 한다"고 말해 이번 할인전쟁이 향후 인터넷 책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출혈경쟁임을 암시했다.

또한 인터넷 책시장 경쟁은 홀츠브링크,

악셀 스프링거와 벨트빌트가 6월 28일 새로운 합작 벤처산업으로 독일의 대표적인 서적도매상 KNO의 유통망을 이용한 인터넷서점 북스트라(Booxtra.de)를 개점한다고 발표해 독일로 번졌다. 현재 독일에는 독일 아마존(Amazon.de)과 독일 BOL(Bol.de) 외에 최근 주식을 공개한 베우허(Buecher.de)가 인터넷 시장을 선점한 상태다.

한편 독일에서도 할인전쟁의 조짐은 보인다. 독일 BOL측은 최근 서점사업 축소로 사라진 블러바드(Boulevard.de)의 고객들을 끌어들이기 위해 저녁 6시부터 8시까지 2시간 동안 인터넷을 통해 무료로 책을 선물하는 행사를 시작해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독일에서는 지난해 2백20만명이 온라인 서점을 찾아 이 중 40만명이 실제 책을 구입해 총 6천만마르크의 판매고를 올린 바 있다. 인터넷 책시장의 이같은 할인전쟁은 해마



다 전자구매가 비약적으로 증가하면서 자연스럽게 발생한 결과다. 미국의 회계법인 언스트 앤 영사에 따르면, 도서분야를 포함한 미국 내 사이버쇼핑 시장은 매년 200%씩 증가하고 있다고 언스트 앤 영사는 2001년 이면 온라인 판매가 전체 판매액의 9%까지 차지할 것으로 전망한다. 국경 없는 인터넷 시장의 이같은 경쟁이 국내에 어떤 파급을 미칠 지는 미지수다. <김연수>